

“균형과 통합, 혁신과 도약”을 위한
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요약

2004. 8.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산 업 자 원 부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계획수립의 배경 | 1 |
| II . 대내외 여건변화 | 4 |
| III .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 | 5 |
| III-1. 계획의 비전과 목표 | 5 |
| III-2.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(안) | 9 |
| III-2-1.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| 9 |
| III-2-2.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| 14 |
| III-2-3. 수도권외의 질적발전 추구 | 17 |
| III-2-4.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| 21 |
| III-3. 지역혁신발전계획(안) | 24 |
| III-3-1.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| 24 |
| III-3-2. 시·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(안)의 주요내용 | 28 |
| III-3-3. 지역 연고산업 육성 | 36 |
| III-4. 계획의 실행과 관리 | 39 |
| III-5.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로드맵 | 45 |
| IV . 5년후 국가균형발전의 모습 | 46 |

I. 계획수립의 배경

I-1. 계획수립의 의의

□ 과거 성장정책의 성과와 한계

- 1960년대 이후 우리는 압축성장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에서 1만달러로의 제1의 국가도약 달성
 - 그러나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정책, 낮은 농산물가격의 인위적 유지, 정경유착과 관치금융, 지역간 불균형심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
-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추어 그동안 수차에 걸친 성장전략의 수정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요소투입형 성장패턴 유지
 - 1997년 IMF외환위기와 마(魔)의 국민소득 1만달러 벽을 10년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

□ 지역간 불균형의 현주소

-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인구·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
 - 수도권 집중억제 위주의 소극적인 방법에 치중, 지역간 격차의 근본적·구조적 원인 해소에는 미흡
 -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

< 주요 지표의 수도권집중 추이 >

| | <u>인구</u> | <u>GRDP</u> | <u>제조업체수</u> | <u>지방세수입</u>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'80 | 36% | 41% | 44% | 54% |
| '01 | 47% | 47% | 57% | 59% |

- 부산, 대구, 광주 등 외형상 세계적 규모의 대도시도 자립기능은 태부족
 - 권역내에서도 광역대도시, 중소도시, 농산어촌간의 경제력 및 생활수준 격차가 현저하며, 상호간의 기능적 연계·협력체계 미비

□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

- 참여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요소투입위주의 발전에서 기술, 인재 및 문화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으로의 정책전환 추진
 -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'혁신주도형 경제발전모델'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구현
-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·추진

< 추진경과 >

- '03.6월 : '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'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 발표
- '03.8월 : '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' 마련 및 통보
- '03.12월 :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
- '03.10월 ~ '04.5월 :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
 - 16개 광역지자체, 20개 중앙행정기관, 산·학·연 및 NGO 등 1,000여명 참여
- '04.5월 : 관계행정기관·전문가 의견수렴, 지역혁신협의회 심의

I-2. 계획의 성격

- 중앙과 지방간 파트너십과 상호연계를 중시하는 협력적 계획
- 지역의 역량과 선택에 기초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최초의 상향식 계획
- 수도권외의 경쟁력 증진과 지방의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적 계획
-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과 보전이 동시에 고려되는 계획
-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기존계획을 상호 연계하는 포괄적이며 나침반 역할을 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
- 계획수립과정에 행정기관, 학계, 연구기관, 언론계, NGO 등이 모두 참여하여 정책수요를 반영한 참여적이며 수요자중심의 계획
 -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는 근본적 차이

| | 경제개발 5개년계획 |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|
|--------|--|--|
| 배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빈곤의 악순환 · 농업중심 경제구조 · 저성장 함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간 격차의 심화 · 요소투입형 경제구조의 한계 · 저기술-저혁신 함정 |
| 계획의 특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행정계획 · 지자체 배제-중앙정부 주도 · 투입주도형 성장모델 · SOC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정계획 ·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· 혁신주도형 지역특성화발전모델 ·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강화 |

II. 대내외 여건변화

-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국가보다는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
 -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국가의 중요성이 퇴색하고 지역의 중요성이 대두(glocalization)
 - 국제적으로는 EU 등 지역공동체 중심으로, 지역단위에서는 클러스터 중심으로 재편
- 집권·단절형 사회에서 수평·네트워크형 사회로의 변혁
 - 중앙집권적인 사회구조에서 벗어나 주체간의 대등한 관계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수평사회로 이행
 - 중앙정부, 지자체, 민간부문간의 단절형 사회구조로부터 주체간 협력과 창조적 경쟁의 네트워크형 사회로 전환
- 교통·정보통신혁명과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균형발전여건 성숙
 - 경부·호남고속철도 개통 및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국토의 시·공간적 구속성 완화
 - 문화와 웰빙(well-being),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
-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따른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
 - 1995년 민선자치제 시행이후 지자체의 기획·추진 역량 제고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증대
-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혁신거점으로서의 도약
 - 첨단기술로 무장된 일본과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이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

Ⅲ.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

Ⅲ-1. 계획의 비전과 목표

Ⅲ-1-1. 비전과 목표

비 전 **균형발전을 통한 “제2의 국가도약”**



목 표 **지역혁신체계(RIS)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**



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추진전략 |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식·기술의 창출·확산·활용 ○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|
| |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간 격차시정 ○ 도·농간의 상생발전 |
| | 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 ○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|
| |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서 횡축의 새로운 대동맥 형성 ○ 국내외 지역간 교류·협력 확대 |

**부문별계획(중앙정부)과 지역혁신발전계획(지자체)을 종합,
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**

Ⅲ-1-2. 추진전략

□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

- 세계화, 지식정보화·문화의 시대에 경제발전의 관건은 투입요소 중대가 아닌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며,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추구
 - 혁신주도형 발전의 핵심은 지식·기술의 창출·확산·활용과정의 시스템화, 교육·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및 효율적 활용
 - 양적 성장 모델과는 달리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협력, 상호학습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

□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

- 인적·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낙후지역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낙후상태를 극복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한계
 -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은 지역간 격차시정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상생발전을 통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
 -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국토의 미활용 잠재력의 재발견을 통해 전국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
- 시혜적 성격의 배분이 아닌 낙후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낙후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제고

□ 수도권외 질적 발전 도모

-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차별적인 특성을 확보하고 서로 의존하며 서로 돕는 상호의존과 相補의식을 공유
 - 수도권의 경우 글로벌경쟁체제에서 수도권이 아니면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분야 및 기능 강화에 역점
 - 지방은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중심으로 특성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
-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
 - 지방에 대한 역류효과(backwash effect)가 적은 분야의 경우 수도권의 경쟁력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우선적으로 추진

□ 네트워크형 국토구조형성

-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가능한 도로망 구축
 - □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완성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 횡축을 확충하여 종축과 횡축 및 순환도로망이 네트워크화되는 국토골격 형성
- 국토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균형발전에 기여
 - 네트워크형 도로망 완성으로 지역간의 교류·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여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
 - 국제교류·개방거점 개발로 주변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토대 구축

< 중장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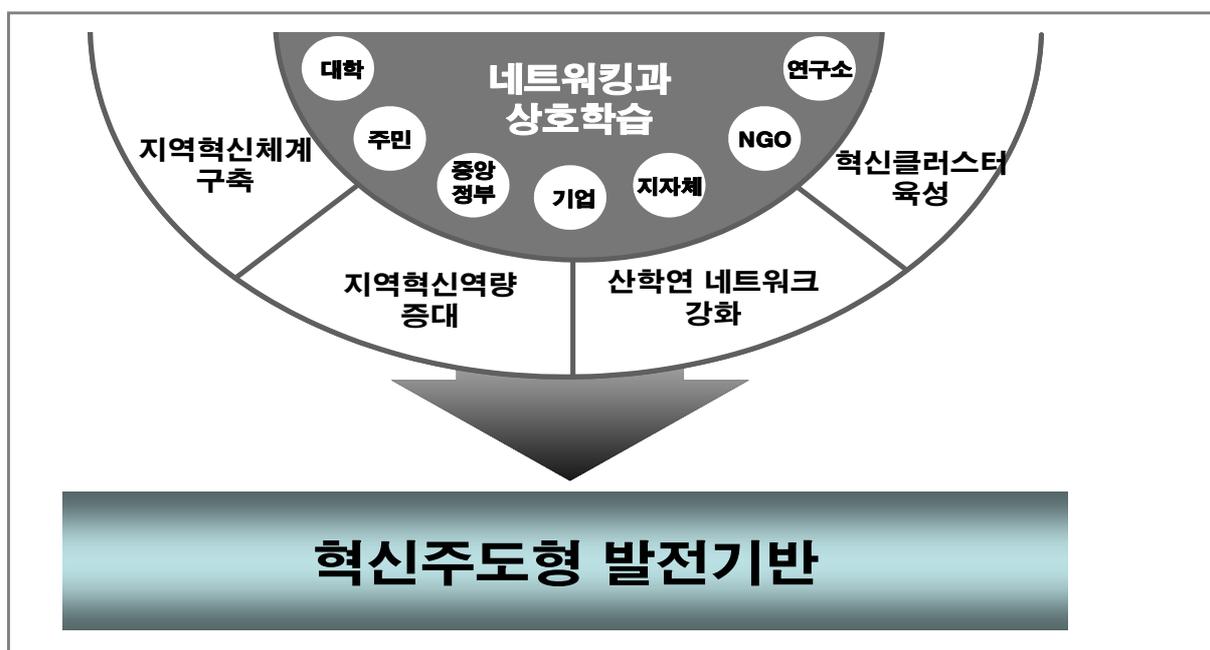
-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('04~'08)은 지역혁신체계 구축, 혁신클러스터 육성,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등 혁신기반 구축으로 지역특성화발전의 기반을 조성
- 제2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('09~'13)은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의 주력산업화, 세계적 클러스터로의 진입 등 혁신성과의 극대화를 추구
- 제3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('14~'18)은 혁신의 질적 고도화 단계로 초일류 원천기술의 보유와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, 명실상부한 세계적 일류클러스터와의 경쟁을 통해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

Ⅲ-2.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(안)

Ⅲ-2-1.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

한국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하여
2~3개의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육성

- 우리 경제는 그동안 기술모방, 물량확대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에 실패
 - SOC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 배양 소홀
 - 반면 선진국들은 세계화 및 지식기반시대의 도래에 따라 혁신형 국가로의 개혁을 추진
- ⇒ ‘정체냐 발전이냐’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도 혁신주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이 필요



가. 지역혁신체계 구축

-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

- 지역혁신체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주요과제
 - (1) 지역의 대표기구로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
 - 기업, 대학, 연구소, 지자체, 시민단체, 지역언론 등이 참여하여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, 주요시책 심의
 - 민주적 협치구조(democratic governance)의 정착으로 지역내 합의 도출

 - (2) 지역의 혁신역량에 대한 기초조사
 - 지역산업의 분포, 기업, 대학 및 연구소의 R&D능력 파악을 위한 지역혁신역량 기초조사

 - (3) 지역혁신사업의 종합조정 추진
 - 다양한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예산검토·기획·조정·평가로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
 - 대학, 기업, 연구소 등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킹과 공동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추진

 - (4) 지역혁신박람회의 정기적 개최
 - 지역혁신 성공사례 발표회 등 지역혁신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혁신문화 창달 및 상호학습의 장으로 활용
 - 지역혁신 성공모델 심화·발전 및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지역혁신체계의 조기구축 지원

나. 지역혁신역량 증대

-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보와 기술이 체화된 인적자본을 배출하는 지방대학과 과학기술이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역할
-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과제
 - (1) 「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」(NURI) 추진
 -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대표적 국책시범사업
 - 지방대학의 핵심인력 양성과 활용을 위하여 5년간 총 1조 3,700억원 투자('04년 2,200억원 투입)
 - (2) 지방대학 구조개혁 등 추진
 - 지방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의 구조개혁 추진
 -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추진으로 지방대학의 취업률 제고
 - (3) 지역별 CRC(Content Research Center) 설립·운영
 - 지방대학에 특성화된 콘텐츠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문화 산업 R&D거점으로 활용
 - (4) 정부R&D예산의 지방지원비율 확대('03, 27%→'07, 40%)
 - 지방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'패키지 프로젝트'를 적극 개발하고 우수연구원의 지방정착 유도
 - (5) e-Science 비전하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
 - 인력, 장비, 연구결과 등 다양한 R&D정보의 종합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과학기술정보인프라를 지원
 - (6) 기술혁신거점단지의 네트워킹 및 효율성 강화
 - TP, TIC, RRC, ITRC 등 기술혁신거점단지를 전국으로 확대·조성하여 지역전략산업 발전의 지원시스템 구축

다. 산·학·연 네트워크 강화

- 혁신주도형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주체인 대학·기업·연구소의 네트워킹 활성화가 필요

- 혁신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주요과제
 - (1) 「산학협력 중심대학」 등 육성
 - 주문식 맞춤형 교육 등 산학일체형 연구개발 및 교육 훈련을 추진하고 산업집적지의 기업간 협력을 활성화
 - 지역의 우수한 이공계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여 산업시설과 우수연구인력의 지방유입 및 정착 유도

 - (2) 「산·학·연 협력 수범사례 확산」 추진
 - 가족회사제도 등 유형별 우수사례 발표회, 순회설명회 개최로 산·학·연 협력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·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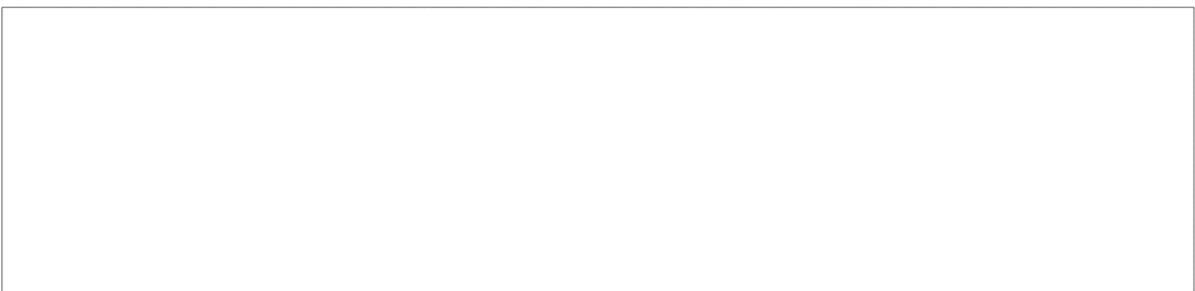
 - (3) 대학의 「산학협력단」 운영 활성화
 - 인력양성,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리 등 대학이 수행하는 R&D사업의 통합·조정 운영 추진
 - 적극적 투자허용(지주회사 설립 검토 등)으로 연구소·대학보유 기술·지적재산권의 사업화 유도

 - (4) 대학·기업·연구소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지식교류를 제공하는 'INNO-Cafe(혁신사랑방)' 조성
 - 산·학·연 네트워크의 사랑방 역할로 암묵지 공유 및 혁신 창출('04, 24개소 → '08, 150개소)

라.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

- 특성화발전을 위해서는 기업, 연구소, 대학 및 기업지원 서비스기관 등의 협력을 통한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필요
-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주요과제
 - (1) 대덕연구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
 - 기존의 R&D기능에 상업화 역량을 보완하고 특별법 제정('04, 하반기)으로 혁신클러스터구축을 제도화
 - (2)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
 - 7개 산업단지(창원, 구미, 울산, 광주, 반월·시화, 원주, 군산)를 시범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확산
 - (3)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미래형 혁신도시 10여개 건설
 -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개 기관 이전, 160개 기업 입주
 - (4) 지역혁신체계의 틀 속에서 4+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가속화
 - 기술혁신 및 상호네트워킹 등 소프트웨어측면을 중점 지원
 - ※ 4개지역 : 12,036억원('04~'08), 9개지역 : 11,067억원('02~'07)
 - (5) 테마파크 등 대규모 복합 관광레저단지 조성
 - (6)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
 - 외국인전용단지, 교육·주거여건 개선 등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

< 혁신클러스터의 발전단계 >



Ⅲ-2-2.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

낙후지역을 혁신활동과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활성지역으로 전환

-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지역격차는 단순한 물리적 차원을 넘어 국민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
 - 개발에서 낙후된 농촌, 산촌, 어촌, 도서지역 등은 내생적인 발전역량의 부재와 자립기반의 상실로 만성적인 저발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
 - 저발전으로 소외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활력소생은 국민통합을 위한 최우선과제
- ⇒ 낙후지역의 역량강화는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을 요구



가. 낙후지역 개발

- 낙후지역의 혁신유도를 위해 일방적인 재원확대보다는 분산되거나 중복된 사업의 체계화로 투자성과의 극대화 추진
-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주요과제
 - (1) 낙후지역 선정 및 재정지원
 - 인구감소율, 지역의 소득수준, 재정상황 등을 종합평가, 전체 기초지자체의 30%내외를 낙후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, 낙후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
 - 3년마다 평가하여 낙후지역을 재선정·고시하고,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부여
 - (2)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낙후지역발전 프로그램 개발·운영
 - 시·군단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·추진
 - 장기적으로 도서, 오지, 개발촉진지구, 접경지역 등 낙후 지역 지원사업의 통합 및 체계화 추진

나. 농산어촌형 RIS구축

- 농산어촌형 RIS란 '산업기반과 혁신역량이 영세한 농산어촌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내부인사, 출향인사, 인근 대학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개방형 지역혁신체계'를 의미
- 농산어촌형 RIS구축을 위한 주요과제
 - (1) 새로운 생활패턴의 변화에 부응한 5都2村사업 시행
 -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·산·어촌에 체류하면서 영농체험·관광·문화·휴양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

- (2)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'지방농업혁신 클러스터' 육성
 - 보성녹차혁신클러스터, 안성브랜드사업단 등
- (3) 1차산업의 혁신과 2,3차산업과의 융합
 - '선운산 복분자' 브랜드화 등 농업중심의 1차산업에 가공, 유통 등 2차·3차산업을 연계,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
 - 지역특화 관광기념품 및 문화상품 개발·유통 지원
- (4) 주민평생학습 프로그램 실시
 - 장성 아카데미 등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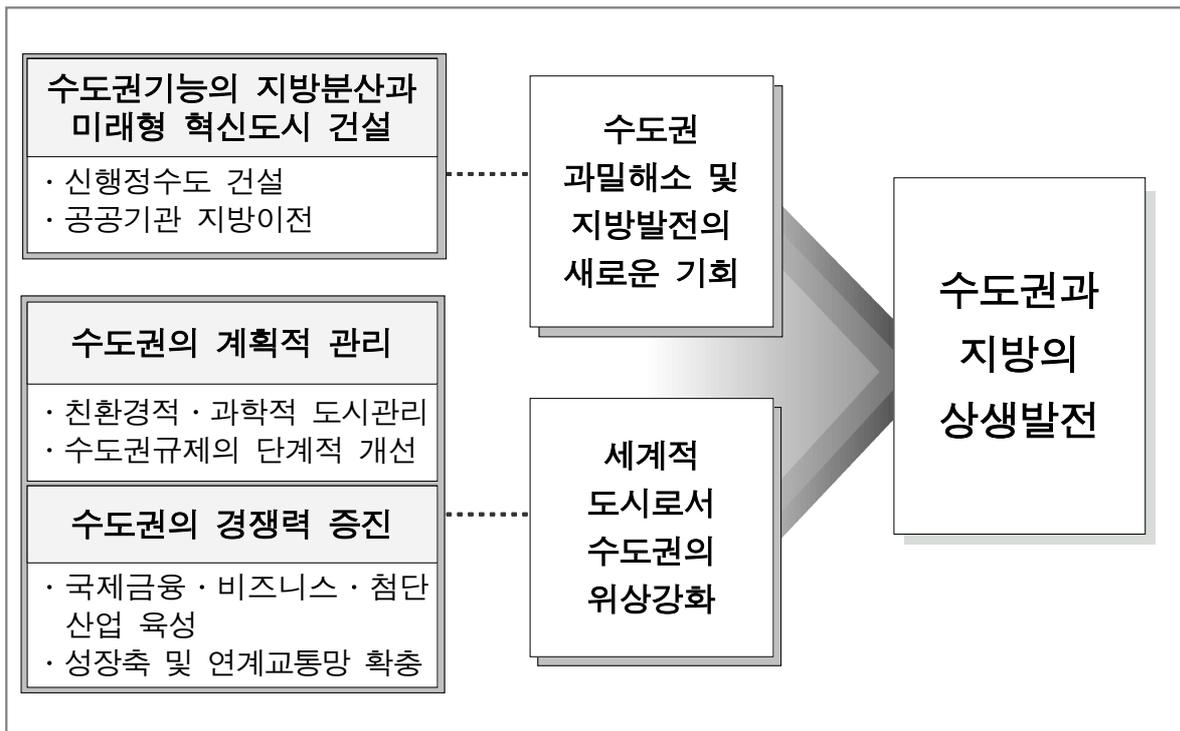
다. 지역경제활성화

-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지역개발시책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
-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
 - (1) 지역별로 특성화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 완화
 - 지자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 특화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규제 철폐
 - (2) 지역마다 차별화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
 - 옹기마을(울주), 우리콩테마단지(속초), 죽공예단지(담양) 등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 개발·지원
 - 농산어촌 특화자원, 폐광·폐교 등 기능상실 자원 활용
 - 문화·역사·테마·레포츠·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 지원
 - (3) 향토성 짙은 관광·이벤트 사업의 기획·개발
 - 녹색농촌체험마을(양평), 인삼축제(금산), 나비축제(함평) 등
 - (4) 지역의 전통과 여건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문화 육성
 - 영상중심도시(부산), 문화중심도시(광주), 전통유교문화도시(안동) 등

Ⅲ-2-3. 수도권 지역의 질적발전 추구

**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로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
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여건 조성**

-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
 - 수도권 집중은 집적의 이익을 넘어 주택·교통난,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유발
 -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증진 시급
 - 수도권집중과 과도한 규제 개선에 위해 수도권분산 시책 및 규제개혁 등을 연계추진
- ⇒ 일정시차를 두고 균형발전정책과 연동, 단계적으로 접근



가.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

- 수도권집중의 폐해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능의 지방분산을 추진
-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을 위한 주요과제
 - (1)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
 - 2011년까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건설(2,300만평, 인구 50만명)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 이전 추진
 - (2)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미래형 혁신도시(city of innovation)를 전국 각지에 개발
 -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되 지방대학 및 핵심기술 연구센터와의 연계성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
 - 교육·문화·주거여건을 갖춘 지식기반·생태·디지털 첨단신도시 형태로 개발
 - 19개 특화기능군으로 분류하여 배치하되 50만평, 2만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
 - (3) 수도권 지연성(地緣性), 민간기관 성격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 이전
 - 저렴한 주택제공, 탁아서비스 제공, 최고의 교육환경조성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
 - (4)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
 - 요소비용 상승 등으로 중국 등 제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지원
 - 이전 적지에 첨단·고부가가치 창업기업 유치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활용

나. 수도권외의 계획적 관리

- 경제, 사회, 환경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단편적·획일적 관리방식에서 계획적 관리방식으로 전환
- 수도권외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주요과제
 - (1) 환경용량을 고려한 과학적 도시계획 및 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
 - 국토환경성평가, 토지적성평가 등 첨단도시계획 기법활용, 종합적 환경대책 등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
 - (2) 중장기 계획, 규제외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도권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
 - 입지, 교육시설 및 개발사업 등
 - (3) 관리목표의 설정, 계획수립 및 집행단계 등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적 관리시스템 구축
 - 주택, 교통, 환경 등 수도권 관련 분야별 계획수립시 기본방향 및 목표의 정합성 유지
 - 계획과 토지이용의 연계, 성과모니터링제 등 수도권 관리의 실효성 확보
 - (4) 효율적인 수도권 관리를 위한 추진체제 구축
 - 중앙정부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광역적 연계 등을 감안하여 국가적 관점에서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
 - 수도권 소재 지방정부는 제시된 수도권 관리방향을 틀 내에서 지역의 토지이용 및 성장관리 등 구체적인 정책 집행

다.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증진

- 지리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식정보·금융·물류 산업 육성 등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추진
- 수도권 경쟁력 증진을 위한 주요과제
 - (1) 지역별 특성과 지역혁신체계 등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권 개발 및 지방과의 균형 유도
 - 서울은 고부가가치(high value-added)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동북아 금융 허브,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 도시로 육성
 - 인천은 수도권배후의 항만과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
 - 경기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고, 접경지역은 남북협력의 전진기지로 개발
 - (2) 서울과 주변의 일극중심형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 구조로 전환하여 공간경쟁력 강화
 - 서울-인천-경기 일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발전의 핵심 거점 육성
 - 기존의 경부, 경인축 외에 수인축 등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특성있는 발전 유도
 - 서울지향적 교통축을 다핵격자·순환형 광역교통망 체계로 개편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간 연계를 강화

Ⅲ-2-4.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

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이내에
신행정수도에 접근가능한 도로망 구축

- 수도권·경부축 등 대도시권 위주의 투자로 동서축 등 여타지역의 개발은 소외
 -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은 간선도로망 등 기본적인 인프라의 미비가 그 원인
 - 국토순환교통망 완성을 통한 네트워크형 국토건설은 우리 국토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대외개방으로 주변국과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 과제
- ⇒ 수도권집중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SOC측면에서 뒷받침

가. 「□자형·방사형 고속교통망」 조기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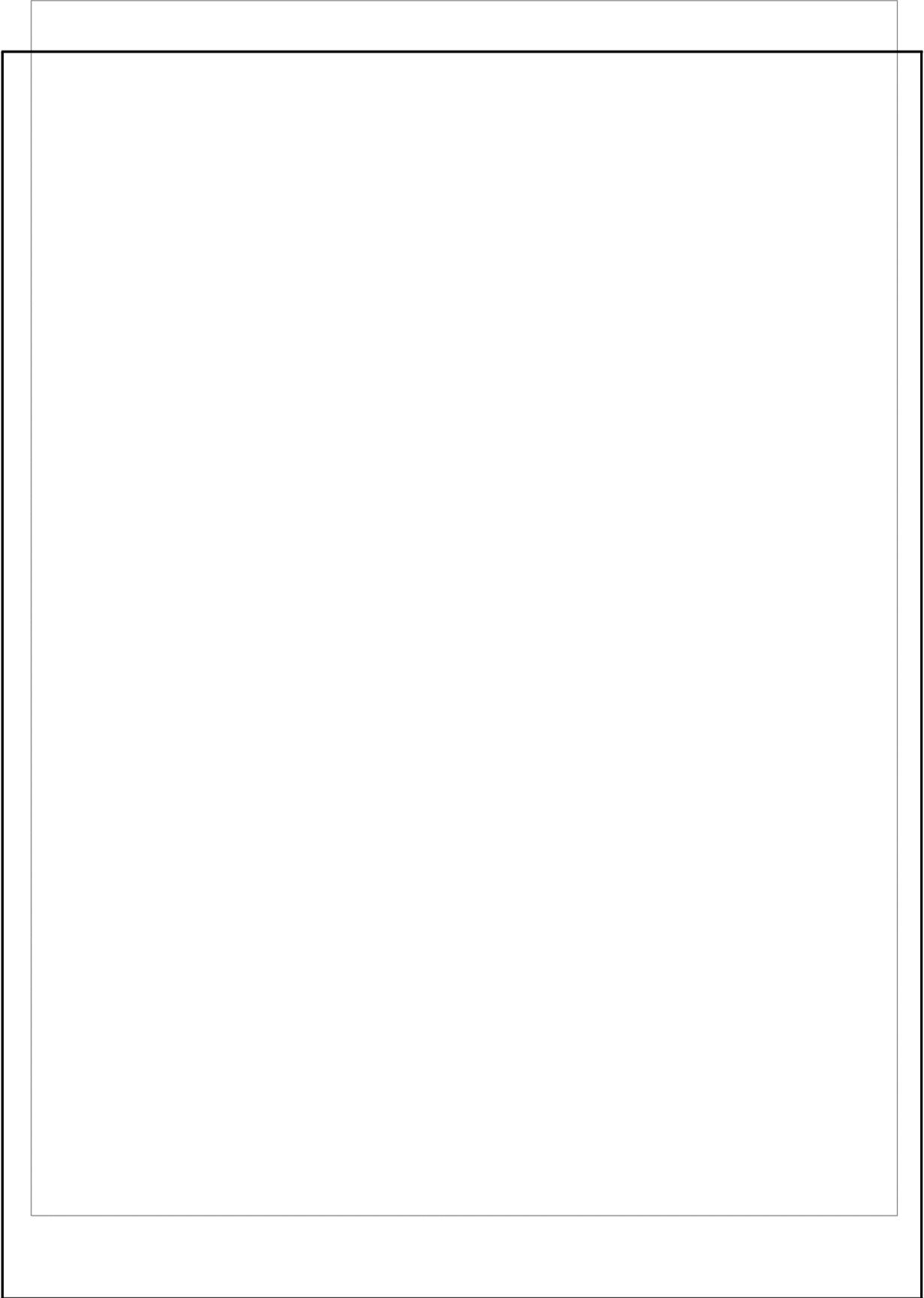
-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'92년부터 「국가간선도로망구축 계획(7×9)」을 추진하여 왔으나 전국토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국토건설에는 미흡
 - 인천, 군산 등 연안중심항의 국제물류기지화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
- 「□자형·방사형 고속교통망」 조기구축을 위한 주요과제
 - 건설중인 노선의 완성으로 동·서·남해 3개 연안축과 북부축(동-서 고속도로)을 조기접속(건설시 생태축을 고려)

나. 동서 횡축 국가간선도로망 완성

- 태백권 등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륙 국가간선도로망, 특히 동서축 간선도로망의 건설이 핵심
 -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계·협력 강화에도 기여
- 동서 횡축 국가간선도로망 완성을 위한 주요과제
 - 함양-울산고속도로, 제천-태백간 38호국도 추진 등

다. 대외개방거점 확보

-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토대로 국내외 혁신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거점 육성
- 개방거점 확보를 위한 주요과제
 - 부산, 인천,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을 개방거점으로 육성
 - TCR, TSR, TMR, TMGR과의 연결을 추진, 유라시아 진출기반 마련



Ⅲ-3. 지역혁신발전계획(안)

Ⅲ-3-1.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

가. 지역 전략산업의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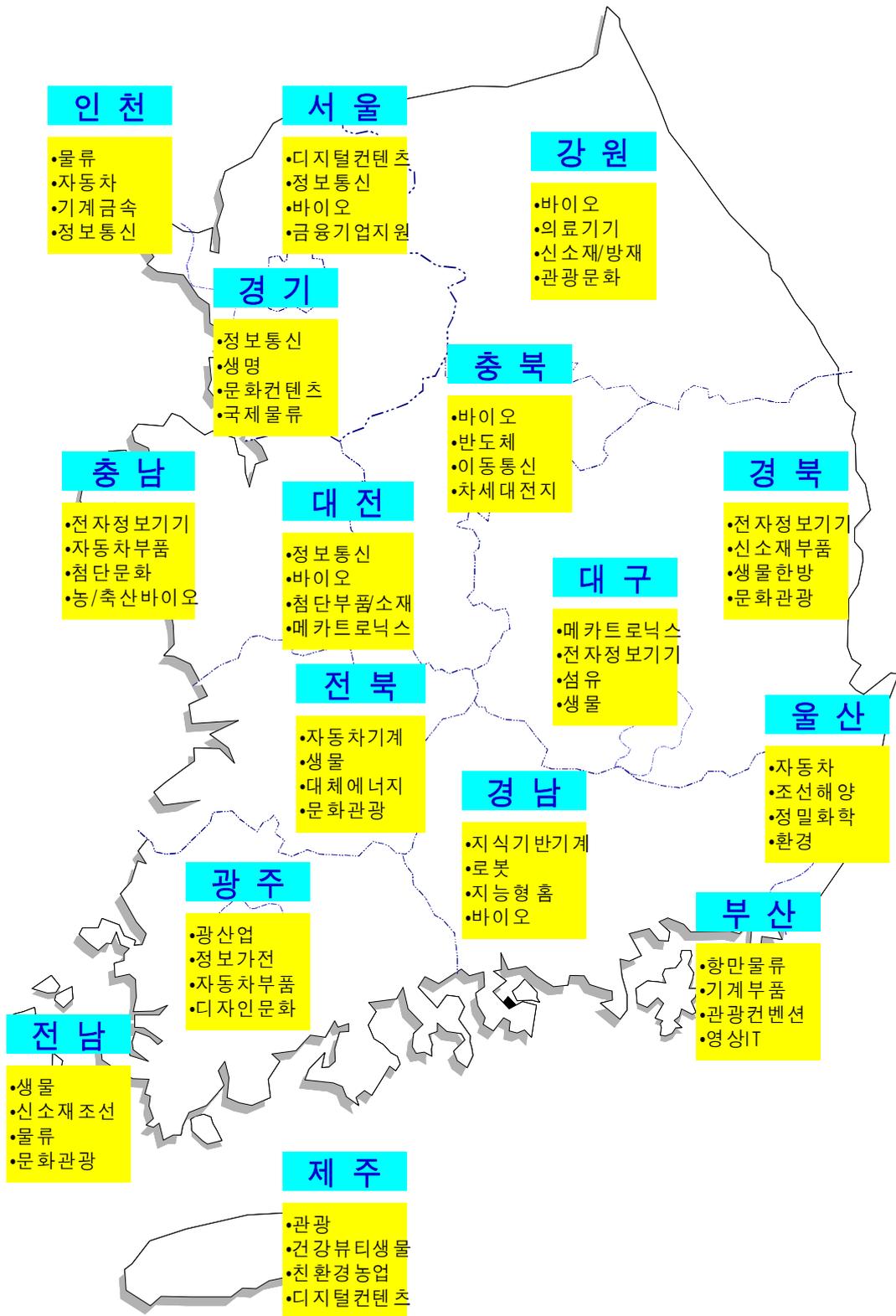
□ 지역 전략산업 선정과정

- 16개 광역지자체는 지역내 의견수렴과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각각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
- 수차례의 전문가컨설팅을 통해 전략산업의 종류와 전략산업내의 중점 산업부문을 조정
 - 지역의 자율적 선정결과 및 육성의지를 최대한 존중

□ 전략산업의 선정 기준

- 최우선적으로 지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고려
- 지역의 산업기반을 고려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상의 전략산업을 반영
 - 기존의 4+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토대로 하고, 국가계획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상의 지역별 산업집적도 등
- 지역내에 이미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는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지식기반 신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
 -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경우는 시·도 여건에 따라 별도의 전략산업 또는 전략산업의 세부 중점 분야에 포함

□ 지역 전략산업의 현황



나. 지역 전략산업의 주요특징

□ 지역별 강점 및 특성과 연계

- 미래 신산업 등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이 전체의 45%를 차지
 - 로봇산업, 디지털컨텐츠, 차세대전지, 스마트 홈 등 9대분야
- 기존 제조업을 지식기반주력산업 중심으로 고도화
 - 전자정보기기산업(대구, 경북), 조선산업(부산, 울산), 자동차산업(울산), 지식기반기계산업(대구, 경남)
- 자연경관과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
 - 바이오산업(강원, 제주, 전남), 건강뷰티·생물산업(제주) 등
- 동북아허브 등 대외지향적 발전전략 추구
 - 금융·국제비즈니스(서울), R&D허브(대전), 교통물류(부산, 인천, 전남), 국제자유도시(제주)

□ 지자체간 중복되는 전략산업은 중점분야를 차별화

- 바이오(또는 생물)산업과 전자(정보)·정보통신산업은 각각 12개 지자체, 10개 지자체가 전략산업으로 선정
 - 세부 중점분야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

| 중복 전략산업 | 지역별 중점분야 |
|---------|--|
| 바이오산업 | · 서울(바이오 신약·의료) · 대구(바이오신소재) · 대전(바이오의약) · 경기(바이오 의약) · 강원(실버청정·해양) · 충북(바이오 신약·장기) · 충남(농축산) · 전북(발효산업) · 전남(농업·해양식품) · 경북(생물한방·해양생명) · 경남(생물화학소재·의료) · 제주(건강·뷰티) |
| 전자정보산업 | · 대구(모바일) · 광주(광전자) · 충남(디스플레이) · 경북(임베디드) · 충북(반도체·이차전지) |
| 정보통신산업 | · 서울(멀티미디어) · 인천(S/W산업) · 대전(통신기기) · 경기(IT부품소재) · 충북(이동통신) |

다.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

- 인접 광역지자체간 산업별·기능별 초광역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특성화발전의 상호 시너지효과 도모
 - 광역지자체간 유사한 업종에서의 인력 및 기술개발, 생산기반 구축 등 기능별 역할분담과 협력

< 초광역클러스터 형성(예시) >

- 광주·전남북 부품·소재산업 초광역클러스터 형성
 - 광주와 전남북 전략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첨단부품소재, 신소재, 자동차·전자·조선관련 부품산업간의 연계
- 대구·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초광역클러스터 형성
 -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(설립예정)을 중심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, 구미국가산업단지, 칠곡「경북하이테크빌리지」등과 연계하여 대구-칠곡-구미를 잇는 IT산업 클러스터 형성
- 대전·충청권 바이오산업 초광역클러스터 형성
 - 대전(생물의약품), 오송(보건의료), 제천(한의약품), 논산(동물자원), 영동(기능성식품)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각각 R&D, 인력양성,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바이오산업 발전 여건을 조성
- 부산·경남·울산 부품·소재산업 초광역클러스터 형성
 - 부산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활용하고 창원·녹산국가산업단지, 울산오토밸리 등과 연계, 기계·자동차·조선산업 지원

Ⅲ-3-2. 시·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(안)의 주요내용

□ 서울 :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의 중심도시

- 국내 최상의 사회·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제 비즈니스·혁신의 중심도시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형성
- 금융산업 및 비즈니스 특화지구, 정보통신산업 특화지구 등 지역별 특화지구 제도 도입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 도모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--------|--|
| 디지털콘텐츠산업 | · 멀티미디어 콘텐츠센터 건립 ·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 사업 |
| 정보통신산업(멀티미디어) | · 서울 IT Green Line 조성 · IT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|
| 바이오산업(신약·의료) | · 바이오/나노 특화지구 연계 사업 · 서울 바이오혁신센터 설치 |
| 금융 및 기업지원서비스산업 | · 국제금융센터 건립 · 국제금융기관,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등을 유치 |

□ 부산 : 물류·비즈니스·해양문화가 함께하는 해양수도

- 동북아의 물류·비즈니스 중심도시, 동남광역경제권의 중추관리도시, 동북아의 해양문화·관광 거점도시로 육성
- 항만물류산업클러스터 구축, IT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구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--|--|
| 항만물류산업 | · 자유무역지역 개발 ·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개발 |
| 기계부품소재산업 | ·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· 부산기계부품·소재기술센터 설립 |
| 관광컨벤션산업 | ·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· 컨벤션뷰로 법인설립 및 프로그램 개발 |
| 영상·IT산업 | · 영화종합후반작업 지원체계 구축 · 부산영상센터 건립 |

□ 대구 : 동북아의 산업혁신클러스터 거점

- '동남권의 R&D 거점 구축', '선도·우수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'으로 역동적·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창출
- 섬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메카트로닉스, 모바일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동남권 거대 산업클러스터의 중추도시로 발전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메카트로닉스산업 | ·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건립 · 센서기술기반 확충사업 |
| 전자·정보기기산업 | · 모바일 단말상용화센터 건립 ·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 |
| 섬유산업 | ·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 추진 · 화섬산지 체질강화 기반구축 |
| 생물산업 | · 전통생물소재산업화센터 건립 · 한방산업클러스터 조성 |

□ 인천 : 시민과 함께하는 동북아의 관문도시

- 국내외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, '인천국제공항', '인천경제자유구역' 등과 연계하여 국제비즈니스 허브 도시로의 발전 도모
- 서해안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동북아 물류 혁신센터 구축 등 물적·인적 인프라 조성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-|---|
| 물류산업 | · 동북아 종합물류 시스템 구축 · 물류·수송관련 전문인력 양성 |
| 자동차산업 | ·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· 미래형·친환경 자동차관련 기술개발 |
| 기계·금속산업 | · 기계·금속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· 신소재(철강, 나노) 관련 기술개발 |
| 정보통신산업 | · 디지털콘텐츠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· 임베디드 S/W 지원센터 구축 |

□ 광주 : 서남권 첨단과학·산업·문화 중심

- 광산업과 첨단부품·소재, 문화산업이 융합된 첨단 클러스터 구축으로 권역내 첨단산업의 선도 역할 수행
- 광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집적도시, 전통문화 예술과 하이테크의 접목을 통한 동아시아 문화예술의 메카와 문화수도로의 도약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------|--|
| 광산업 | · 차세대 광반도체 소재·부품·시스템 기술개발 · 광응용제품 개발 및 반도체 광원 시험생산 지원 |
| 정보가전산업 | · 광주 디지털컨버전스센터 설립·운영 · 스마트 홈네트워크 기술개발 지원 |
| 자동차·첨단부품소재산업 | · 자동차/전자 공통기반 기술개발 지원 · 나노기술 집적센터 기반구축사업 |
| 디자인·문화산업 | · 디자인센터 건립 및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창설 · 디지털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|

□ 대전 : 세계 과학기술의 허브도시

-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형 발전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선도
- 대덕R&D특구 조성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R&D 핵심 거점 구축과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주력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---|---|
| 정보통신산업 | · 차세대 이동통신 클러스터 구축 ·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양성 |
| 바이오산업 | · 바이오산업진흥원 건립 · 통합정보시스템·인적 네트워크 구축 |
| 첨단부품·소재산업 | · 차세대전자·신소재부품 기술개발지원 · 나노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|
| 메카트로닉스산업 | · 지능형 로봇 표준화 및 공동마케팅 구축 · 산학연 및 기업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 |

□ 울산 : 한국 주력산업의 지식기반화 선도

- 기존 주력산업의 첨단형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성장을 선도
- 생산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여 생산중심에서 혁신주도형 성장 기반 구축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|--|
| 자동차산업 | · 자동차부품 종합기술연구소 설립 및 운영 · 차세대자동차산업 핵심기술개발 및 선진화 |
| 조선해양산업 | · 조선해양산업 종합지원체제 구축 · 고부가가치 선박해양 구조물 개발 |
| 정밀화학산업 | · 정밀화학산업 지원단 설치 · 정밀화학산업 기술혁신단지 조성 |
| 환경산업 | · 울산환경기술종합지원센터 설립 · 울산산업단지의 에코모듈화 구축사업 |

□ 경기 :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세계적 수준의 지식·정보 허브

- 혁신주체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육성
- IT-LCD클러스터 조성,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경기 동·북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통한 도내 지역균형발전 도모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-|--|
| 정보통신산업 | · 판교 IT 벤처 업무단지 조성 · 비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|
| 생명산업 | ·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· 미래 의약 개발 및 시험평가 사업 |
| 문화컨텐츠산업 | · 만화·영상, 출판, 게임 등 문화산업클러스터 연계 · 광명음악밸리(역세권 개발과 연계) 조성 |
| 국제물류업 | · 평택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·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|

□ 강원 : 세계속의 생명·건강산업 수도

- 관광과 연계한 농산어촌의 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생명·건강산업의 메카로 육성
- 생명과 건강을 테마로 기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식기반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'인간·생명 지역혁신 체계'를 구축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--|---|
| 바이오산업 | · 실버·청정 바이오기술개발센터 건립 ·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(고성·강릉·동해) |
| 의료기기산업 | · 원주권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·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|
| 신소재·방재산업 | · 신소재·방재산업 기술연구개발 기반강화 · 플라즈마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|
| 관광문화산업 | · 테마관광루트('신토불이길' 네트워크) 개발 · 애니메이션 창작기획 전문인력 양성 |

□ 충북 : 바이오토피아(Biotopia) 충북

- 오송 생명공학단지, 오창 과학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BT와 IT의 결합
- 바이오산업 중심의 전략 및 지연산업 특화발전과 이를 연결하는 4B-8C(4개벨트-8개클러스터)의 광역클러스터 조성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바이오산업 | · 바이오툴 통합지원센터 ·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개발사업 |
| 반도체산업 | · 시스템IC 설계지원센터 · 시스템IC 기술개발사업 |
| 이동통신산업 | · 이동통신 기술지원센터 · 차세대 이동통신 고급인력양성 |
| 차세대전지 | · 전지산업진흥센터 · 전지설계·제조 기술개발사업 |

□ 충남 : 동북아 경제권의 신성장산업 육성

-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대중국교역의 교두보로서 서해안 생산기지 형성
- 기흥-천안-청주 지역을 연계하는 IT밸리, 천안·아산-서산-당진을 연계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-----|--|
| 전자·정보기기산업 | · 디스플레이 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· 디스플레이 교육센터 운영 |
| 자동차·자동차부품산업 | · 자동차 부품소재 R&D 집적화센터 설립 · 자동차산업 혁신체계(RIS)구축 |
| 첨단문화산업 | ·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· 영상콘텐츠 Data Bank 센터 |
| 농·축산바이오산업 | · 바이오산업 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· 인삼·약초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|

□ 전북 : 21세기 환황해경제권 생산·교류의 핵심 거점

- 지역 발전 중추인 핵심거점지역 전주-익산-군산-김제-정읍을 잇는 T자형 산업벨트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
- 첨단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성장과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의 보존이 조화되는 지역발전모형 구축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| ·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 · 첨단기계산업집적단지 조성 및 고도화 사업 |
| 생물산업 | · 바이오파크 구축사업 · 건강기능식품 상용화 시스템 구축사업 |
|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| · 나노 방사선 영상기술 개발사업 ·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|
| 전통문화·영상·관광산업 | · 맞춤형 체험관광상품 활성화사업 ·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사업 |

□ 전남 : 신산업 · 물류 · 관광의 중심지

- 기존산업의 집적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물류 및 관광중심지로의 도약
- 기존산업과 지식기반 신산업간의 유기적 연계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산업화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----|--|
| 생물산업 | · 청정생물산업 클러스터 단지조성 · 기능성식품 종합지원단지 조성 |
| 신소재 · 조선산업 | · 신소재기술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· 조선기자재 집적화단지 조성 및 업체유치 |
| 물류산업 | · 항만물류종합지원센터 건립 · 차세대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(NILS) 구축 |
| 문화관광산업 | · 문화 · 관광 복합컨텐츠 개발 · 21C 뉴 흥길동 및 氣 문화프로젝트사업 |

□ 경북 : 환동해 경제권의 혁신교류거점

- 경북도내 4개 권역별 특성화 및 연계화 추진으로 환동해 산업기술의 전략적 중심지화 추진
- 안동(생물, 한방), 구미(전자정보), 경산(학원단지), 경주 · 포항(문화,소재) 등으로 권역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구미-칠곡-대구를 연계한 IT산업밸리 조성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-----|--|
| 전자 · 정보기기산업 | · 디스플레이 지출지원센터 설립 · 임베디드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 |
| 신소재 · 부품산업 | · 나노소재 산업화 기술 개발 · 자동차용 신소재 및 금형기술 개발 |
| 생물 · 한방산업 | · 한방치료제 및 기능성제품 연구개발 · 해양생명체 유래 유용 신물질 연구개발 |
| 문화 · 관광산업 | · 신라천년 문화체험관 건립 · 명상문화컨텐츠 종합개발원 조성 |

□ 경남 : 과학 · 기술 · 정보 거점의 첨단산업 중심지

- 메카트로닉스, 항공 · 우주, 조선 등 전략산업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
- 기계Mecha-know벨트(김해-창원-사천), 생명공학Bio벨트(김해-진주-통영 · 고성 · 거제) 중심의 산업집적
- “울산-부산-경남”으로 연결되는 동남권 광역클러스터 조성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---|--|
| 지식기반기계 산업 | · 지역특화기술고도화 지원 사업 ·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지원센터 조성 |
| 로봇 산업 | · 차세대 인간 공존형 제조 로봇 개발 · 경남 로봇밸리 조성 |
| 지능형 홈 산업 | · 지능형 홈 핵심기술 확보 · 지능형 홈 산업화 연구센터 건립 |
| 바이오 산업 | ·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·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(GMBT) 조성 |

□ 제주 : 동북아 관광 · 휴양 중심

-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간-환경-지식 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
- 연구기반확충 및 우수첨단기업의 지역유치로 기존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식기반산업의 발전 모색

| 전략산업 | 주요사업 |
|--------------|--|
| 관광산업 | ·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조기 추진 · 지역 항공사 설립 |
| 건강 · 뷰티 생물산업 | · 제주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설립 · 향장품, 건강 식품 · 의약품 개발 육성 |
| 친환경 농업생명산업 | · 우량종자 · 종서 · 종구의 개발 및 생산 지원 · 친환경 농축산업 연구개발단지 조성 |
| 디지털컨텐츠산업 | · 제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· 관광과 접목된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|

Ⅲ-3-3. 지역 연고산업 육성

□ 16개 광역지자체별로 10개 내외의 지연산업 선정

- 세계 틈새시장을 겨냥한 지역 연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연산업을 선정·육성
- 선정된 지연산업을 유형별로 보면 식품관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, 다음으로 관광, 문화, 농림어업(축산포함) 및 섬유산업의 비중

□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육성전략 도출

-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혁신중심의 지연산업 육성전략을 마련

□ 지연산업은 주민 주도의 내생적 지역혁신발전 전략으로 추진

- 지역 지연산업은 지역특화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육성 전략을 마련
-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고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상품 개발
 - 지연산업 관련 상품의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
 - 농산어촌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지역 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관광·문화 상품화

— < 지연산업 육성전략(예시) > —

- 전북은 순창장류산업을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육성
 - 장류식품 및 발효식품 발전 인프라 구축과 장류기업과 원료 생산 농가간 계열화, 장류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집적화를 도모
- 충남은 금산 인삼·약초산업을 실버산업으로 확장
 - 금산 지역의 풍부한 한약재 생산자원을 활용한 인삼·약초 바이오산업과 IT기술을 융합한 실버바이오산업으로 육성
- 경기도는 이천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도자산업클러스터로 육성
 - 도자특구지정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 기반조성하고 도자 타운 조성으로 관광명소화 해외 관광객 유치
- 경북은 기능성 상품의 개발 등으로 의성 마늘가공산업을 육성
 - 의성 마늘연구소 건립하여 한지형 의성마늘의 재배, 육종, 병리, 약리분석 연구, 마늘 가공식품 연구개발, 마늘 영농 기계화사업 추진
- 경남은 하동 녹차산업을 세계적인 명차로 육성
 -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품질향상기술 보급하고, 천혜의 자연 환경과 차문화와 유적을 실용적 감각에 접목하여 Green tourism 녹차관광산업을 선도
- 강원은 유기농업을 상품기획, 벤처농업가 육성 등으로 통해 농생명바이오산업의 차원으로 육성
 - 자연순환형 유기농 생태마을을 건설하고, 유기농업벤처기술학교 및 강원유기농업종합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

< 시·도별 주요 지연산업 현황 >

| 지역 | 주요 지연산업 |
|----|--|
| 서울 | 인쇄산업, 문화·관광산업 등 |
| 부산 | 범천동귀금속산업, 기장해조류 가공·유통산업, 자갈치시장, 미니토마토 유통산업, 화훼부류 유통산업 등 |
| 대구 | 문화콘텐츠산업, 비즈니스서비스업, 안경산업, 소프트웨어산업, 전시·컨벤션산업, 출판·인쇄산업 등 |
| 인천 | 강화도새우젓, 완초공예산업, 수산자원조성사업,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, 사자발약쑥특산품 등 |
| 대전 | 영상·게임산업, 웰빙산업(실버벤처산업), 대덕구공예산업, 동구포도주가공산업, 첨단섬유소재산업 등 |
| 광주 | 김치산업, 한복패션산업, 전문특화상업거리 육성, 양동재래시장 문화거리조성사업, 화훼·원예산업 등 |
| 울산 | 울산농산물, 울산축산업, 산악·산업·해양관광산업 등 |
| 경기 | 경기북부가구산업, 이천도자기산업, 양주회암사지종합개발사업, 수동관광지종합개발사업, 도라산평화공원조성사업 등 |
| 강원 | 생명농어업, 건강채소·화훼산업, 토종동물산업, 목재·산림산업, 유기농업, 한방·약초산업 등 |
| 충북 | 바이오농업, 석회석신소재산업, 옥천묘목산업, 에코세라피건강산업, 보은문화산업 등 |
| 충남 | 금산인삼산업, 보령머드산업, 공주자카드섬유산업, 계룡군문화엑스포,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등 |
| 전북 | 익산귀금속·보석산업, 익산니트산업, 남원옷칠산업, 순창장류산업, 임실유가공산업 등 |
| 전남 | 기능성식품산업, 토종약초생산·가공업, 나비디자인·천연염색산업, 도자기(삼강청자)산업, 전통애견(진도개) 산업 등 |
| 경북 | 섬유기계산업, 한방산업, 인삼가공산업, 문화축제 이벤트산업, 농산물가공·시설채소산업 등 |
| 경남 | Silk산업, 석재가공산업, 축산사료유통산업, 하동녹차가공산업, 약초·자연건강식품산업 등 |
| 제주 | 축산업, 수산업, 스포츠산업, 향토음식산업, 화훼산업 등 |

※ 굵게 표시된 산업은 세계 틈새시장 진출이 가능한 지연산업을 의미

Ⅲ-4. 계획의 실행과 관리

Ⅲ-4-1. 국가균형발전 추진체제

- 계획수립과 재정운용에 있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
- 지역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

□ 새로운 중앙-지방관계의 설정

- 지방정부주도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원리에 따라 지원사업 결정
 - 중앙정부는 비전 제시 등 국가차원의 조정역할 수행
- 국가의 일방적인 統治(government)에서 동반자로서 지방과의 協治(governance)로 전환

□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

- 지역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지역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「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」 운용
 - 지자체 보조금, 양여금사업을 편입('05년 5조원 규모로 출발)
-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
 -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및 사후평가방안 도입
- 지역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성과중심의 운용을 위하여 「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」 활성화
 - 정부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국고 지원액 예산 편성시 최우선적으로 반영

□ 국가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 강화

- SOC·과학기술·산업 등 분야별 국가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 강화로 지역개발사업의 종합성·효율성 도모

Ⅲ-4-2. 재원소요 및 조달방안

가. 재원소요

부문별계획

-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66조 5,732억원으로 연평균 9.5% 증가
- 이중 국비는 44조 5,349억원으로 전체의 66.9% 차지
 - 국비는 계획기간동안 연평균 8.8% 증가
 - 회계별로는 균특회계가 27조 8,751억원, 일반회계 등 기타소요가 16조 6,598억원으로 각각 국비의 62.6%, 37.4% 차지
 - 사업별로는 지역전략산업육성, 지역생활환경 인프라확충, 낙후지역개발이 각각 국비의 31.9%, 15.9%, 15.7% 차지
- 지방비는 14조 4,573억원으로 전체의 21.7%를 차지하고, 민자는 7조 6,110억원으로 전체의 11.4%를 차지

< 부문별계획의 재원소요('04~'08년) >

(억원)

| | 총계 | | 2004 | 2005 | 2006 | 2007 | 2008 | 04-08년 증가율(%)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비중 | | | | | | | |
| 총투자소요 | 665,732 | 100 | 108,562 | 123,164 | 133,708 | 143,940 | 156,358 | 9.5 |
| ○ 국비 | 445,349 | 66.9 | 74,155 | 81,773 | 89,111 | 96,314 | 103,996 | 8.8 |
| · 균특 | 278,751 | 41.8 | 49,705 | 51,858 | 54,448 | 59,286 | 63,454 | 6.2 |
| · 일반회계 등 기타 | 166,598 | 25.1 | 24,450 | 29,915 | 34,663 | 37,028 | 40,542 | 13.5 |
| ○ 지방비 | 144,273 | 21.7 | 26,400 | 27,350 | 28,276 | 29,995 | 32,252 | 5.1 |
| ○ 민자 | 76,110 | 11.4 | 8,007 | 14,041 | 16,321 | 17,631 | 20,110 | 25.9 |

< 사업별 재원 >

(단위: 억원)

| | 04 | 05 | 06 | 07 | 08 | 04-08년 합계 | 증가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| | | | 04-08년 |
| 국가균형발전 총계 | 108,562 (74,155) | 123,164 (81,773) | 133,708 (89,111) | 143,940 (96,314) | 159,358 (103,996) | 665,732 (445,349) | 9.5 (8.8) |
| 지역전략산업 육성 | 27,242 (24,072) | 30,646 (26,907) | 32,499 (28,882) | 34,311 (30,326) | 35,855 (31,677) | 160,553 (141,864) | 7.1 (7.1) |
| 지방대학 육성 | 4,431 (4,431) | 4,888 (4,888) | 5,518 (5,518) | 6,135 (6,135) | 6,563 (6,563) | 27,535 (27,535) | 10.3 (10.3) |
| 지역과학·기술 진흥 | 1,489 (925) | 1,520 (990) | 2,085 (1,256) | 2,807 (1,725) | 3,432 (2,125) | 11,333 (7,021) | 23.2 (23.1) |
| 지역문화·관광 육성 | 14,696 (5,100) | 13,912 (4,959) | 16,020 (5,958) | 18,287 (5,975) | 22,470 (6,360) | 85,385 (28,352) | 11.2 (5.7) |
| 지역정보통신 진흥 | 2,301 (1,615) | 2,582 (1,660) | 2,517 (1,384) | 1,581 (664) | 2,881 (1,684) | 11,862 (7,007) | 5.8 (1.1) |
|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| 204 (174) | 175 (145) | 177 (147) | 197 (167) | 217 (187) | 970 (820) | 1.6 (1.8) |
| 지역경제 활성화 | 14,417 (10,192) | 16,410 (11,390) | 18,169 (12,907) | 19,937 (13,727) | 17,860 (13,307) | 86,793 (61,523) | 5.5 (6.9) |
| 개방거점 확보 | 4,456 (2,402) | 8,764 (3,347) | 9,905 (3,651) | 8,651 (3,551) | 9,352 (4,382) | 41,128 (17,333) | 20.4 (16.2) |
| 지역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| 19,547 (12,713) | 20,650 (13,016) | 21,102 (13,721) | 22,894 (15,083) | 25,728 (16,318) | 109,921 (70,851) | 7.1 (6.4) |
|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 | 1,923 (936) | 2,318 (1,156) | 2,710 (1,300) | 4,984 (3,684) | 7,220 (5,920) | 19,155 (12,996) | 39.2 (58.6) |
| 낙후지역개발 | 17,856 (11,595) | 21,299 (13,315) | 23,006 (14,387) | 24,156 (15,277) | 26,780 (15,473) | 111,097 (70,047) | 8.5 (7.5) |

※ () : 국비

지역혁신발전계획

□ 2008년까지 국비기준 총 28조 9,901억원 소요 예정(시·도 요구기준)

- 국비기준으로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21.9% 증가
 - 재원별로는 균특혁신계정 사업이 68.6%로 가장 비중이 높고, 균특개발계정과 일반회계가 각각 12.6%, 11.7%의 비중
- 지방비는 계획기간동안 총 12조 37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9.9%, 민자는 총 19조 3,419억원으로 32.0%를 차지
- 사업유형별로는 센터건립, 장비 구축 등 하드웨어사업이 51.0%로 절반 이상의 비중 차지
 - R&D, 인력양성사업은 각각 13.6%, 11.1%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혁신 확충은 각각 19.1%, 14.5%의 비중
 - 해외마케팅, 창업보육 등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의 경우도 10.2%로 높은 비중

<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재원소요('04~'08년, 시·도 요구기준) >

(억원)

| | 총계 | | 2004 | 2005 | 2006 | 2007 | 2008 | 04-08년 증가율(%) |
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| 비중 | | | | | | |
| 총투자소요 | 603,694 | 100 | 56,576 | 122,347 | 138,401 | 144,349 | 142,022 | 25.9 |
| ○ 국비 | 289,901 | 48.0 | 29,286 | 60,226 | 68,463 | 67,348 | 64,578 | 21.9 |
| · 균특회계 | 235,586 | 39.0 | 24,719 | 49,221 | 56,403 | 55,821 | 49,422 | 18.9 |
| · 일반회계 | 33,942 | 5.6 | 3,119 | 7,230 | 8,284 | 7,820 | 7,490 | 24.5 |
| · 기타 | 20,373 | 3.3 | 1,448 | 3,776 | 3,776 | 3,708 | 7,666 | 51.7 |
| ○ 지방비 | 120,375 | 19.9 | 13,061 | 32,701 | 26,542 | 23,511 | 24,561 | 17.1 |
| ○ 민자 | 193,419 | 32.0 | 14,229 | 29,420 | 43,397 | 53,490 | 52,883 | 38.8 |

나. 조달방안

- 국비지원과 「국가재정운용계획」 과의 연계 강화
 - 부문별계획에 포함된 국비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('04~'08년)의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지원
 - 지역혁신발전계획의 국비사업 중 부문별계획과 공통되는 사업은 11조원 규모로 추정
 - 지역의 추가요구(18조원 규모로 추정)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타당성 및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반영여부 판단
- 균특회계 규모는 낙후지역 지원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확대하되, 회계규모는 중앙-지방기능 조정과 연계하여 운용
- 지방재정력의 지속적 강화로 지방의 가용재원 확대
 - 교부세율 인상 등 이전재원 증가
 - 지역개발세, 레저세 등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개발 및 과세 대상 확충
- 민간자본 유치 방안 다각화
 -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국고보조, 융자, 민자유치, 자체부담, 외자유치 등 재원조달원을 다양화
 - 지자체가 자기 책임하에 금융시장에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금융기관간 중개기관으로 (가칭)지역개발금융공사 설립 검토
 -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, 프로젝트 컨설팅,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기초투자, 지방채(지방공기업채권) 인수 등

III-4-3. 국가균형발전의 평가체계 확립

-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투명성,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과 운영이 필수
 -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기획능력과 자체평가기능을 제고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
- 평가시스템은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예산신청서에 대한 검토(사전평가)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 평가(사후평가)로 구분
 - 정기적으로 외부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수행주체의 자체 평가에 내재하는 평가의 중립성·공정성 등 문제점 보완

| 평가분류 | 평가주체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시행계획 평가 및 예산신청서 검토 | 국가균형발전위원회 | ·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지자체 예산신청의 연계성 중점 평가 · 지역간 사업의 중복 조정 |
| 컨설팅 |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부처 | · 지방의 성과향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 |
| 추진실적평가 | 국가균형발전위원회 | ·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|

- 평가대상 사업은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지역개발 및 지역 혁신과 관련하여 추진중이거나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
 - 평가결과는 익년도 균특회계와 연구개발예산 등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지원과 연계

III-5.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로드맵

| 추진전략 | 추진방안 | 주요과제 | 추진일정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| '04 | '05 | '06 | '07 | '08 |
|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| 지역혁신체계 구축 |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| — | | — | | — |
| | | 지역의 혁신역량 기초조사 | | — | | | — |
| | | 지역혁신사업의 종합조정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지역혁신박람회의 정기적 개최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지역혁신역량 증대 |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(NURI)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지방대학 구조개혁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지역별 CRC 설립·운영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정부R&D예산 지방지원비율 확대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국가과학기술중합정보시스템 구축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기술혁신 거점단지의 전국적 확대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산학연네트워크 강화 |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산학연협력 수범사례 확산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대학의 산학협력단 운영 활성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INNO-Cafe 조성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 | 대덕연구단지 혁신클러스터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4+9개 지역산업진흥사업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테마파크 등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지역별 클러스터화와 연계한 외자유치 |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|
|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| 낙후지역개발 | 낙후지역 선정 및 재정지원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장기적·종합적 개발계획 수립·추진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농산어촌형 RIS구축 | 5도2촌사업 시행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지방농업혁신클러스터 육성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1차산업 혁신과 2,3차산업 융합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주민평생학습 프로그램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지역경제 활성화 |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·육성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지역의 향토자원 개발 및 활용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관광백화점 기획·개발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특성화된 지역 문화육성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 |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 | 신행정수도 건설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미래형 혁신도시 개발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| 친환경적·과학적 도시관리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수도권규제의 단계적 개선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계획 관리시스템 구축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| 동북아 경제중심권으로 개발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| 다핵분산형구조로의 전환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| □자형·방사형 고속교통망 | 3개 연안축과 북부축 연계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동서횡축간선망 | 낙후된 내륙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| | 대외 개방거점 | 경제자유구역 등 개방거점 육성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

계획수립
 부처협의
 정책추진

IV. 5년후 국가균형발전의 모습

5년후의 달라진 모습

- 역동적 발전 기반 구축
 - 2~3개의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육성기반 조성
 - 향후 5년간 요소생산성 증가율 1%p 상승
-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
 - 낙후지역을 혁신활동과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활성지역으로 전환
 - 도시대비 농촌소득 수준 상승 : 90%('02) → 100%('08)
-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
 - 최고의 교육·문화·주거 여건을 갖춘 미니 신도시 10여개 건설
-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 및 경쟁력 증진
 - 동경, 북경, 상해 등 동북아 중심도시와 경쟁가능한 비교우위 확보

변화의 動因

| 혁신주도 경제구조로의 전환 | 지역의 역동적 발전 촉진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장동력 창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- R&D투자확대 및 창의적 인력 양성 ○ 경제의 역동성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의 상업화 및 창업 활성화 - 외국 R&D센터 등 외자유치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혁신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및 상호학습 - 지역 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○ 지역 전략산업 육성 ○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총괄국 | |
| 연 락 처 | (02) 2110-5593 (02) 3703-2685 |